KB금융 이재근 號 출범… 연말 계열사 CEO인사 '시험대'

찬성률 97.69%… 오늘 취임식
"글로벌 리딩금융 위해 역량 집중"
자회사 10곳 내달 31일 임기만료
첫 인사가 '이재근 호' 가늠 잣대

KB금융그룹의 '이재근 체제'가 닻을 올렸다. 역대 최대 실적 속에서도 안정 대신 변화와 세대교체를 택한 만큼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22일 KB금융에 따르면 이재근 신임 회장이 21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 20일까지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단독 상정된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안건은 출석 주식 수 대비 97.6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윤종규 전 회장이 9년간 그룹을 이끈 뒤 2023년 양종희 전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데 이어 KB금융은 3년 만에 다시 수장을 바꿨다. 공식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이재근 KB금융그룹 신임 회장.

◆ 국내 1등 너머…변화 꾀하나

이 회장이 내건 비전은 '국내 1등 너머'다.

그는 후보 확정 직후 첫 출근길에서 "국내 금융그룹 1등이라는 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B금융이 상반기 역대 최고 성과를 냈고 주가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후보로 선임된 것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머니무브, 고령화 같은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 있다며 앞으로 3~5년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경영과 전략,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급격한 단절보다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점차 체질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양 회장 역시 연속성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전경.

양 전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이임식을 통해 "경영은 계주"라며 바통을 이 회장에게 건넨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 증권, 보험과 카드의 경계를 넘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고객에게 가장 좋은 해법을 주는 것이 하나의 KB로 함께하는 이유"라며 "과거의 방식을 넘어 KB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 첫 시험대는 계열사 CEO 인사

당장 직면한 과제는 인사다. KB금융 자회사 11곳 가운데 10곳의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직개편과 계열사 CEO 인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진용을 새로 짜야 하는 만큼 첫 인사가 '이재근호'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

관심은 국민은행장에 쏠린다. 이환주 현 행장(1964년생)은 신임 회장보다 두 살 많다.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와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은 1968년생이다.

다만 이 회장은 나이에 따른 기계적 세대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후보자 지명 당시 "젊은 KB의 세대교체는 나이가 아닌, 의사결정을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역량과 전문성, 조직원의 헌신을 끌어낼 리더십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 인사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등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높아진 실적 눈높이…주주환원 지속

높아진 실적 눈높이는 부담이다.

KB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조6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회계처리를 반영해 당초 잠정치보다 1486억원 낮춰 정정 공시했지만 사상 첫 연간 순이익 6조원 돌파는 여전히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3분기에는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시장 변동성으로 분기 순이익이 1조758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7% 줄었다. 양 전 회장 체제에서 공식화한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신임 회장의 몫이다.

주주환원 기조를 이어가는 일도 과제다. KB금융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025년 총주주환원율을 52.4%까지 끌어올렸고, 올해 2월에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시가총액 6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예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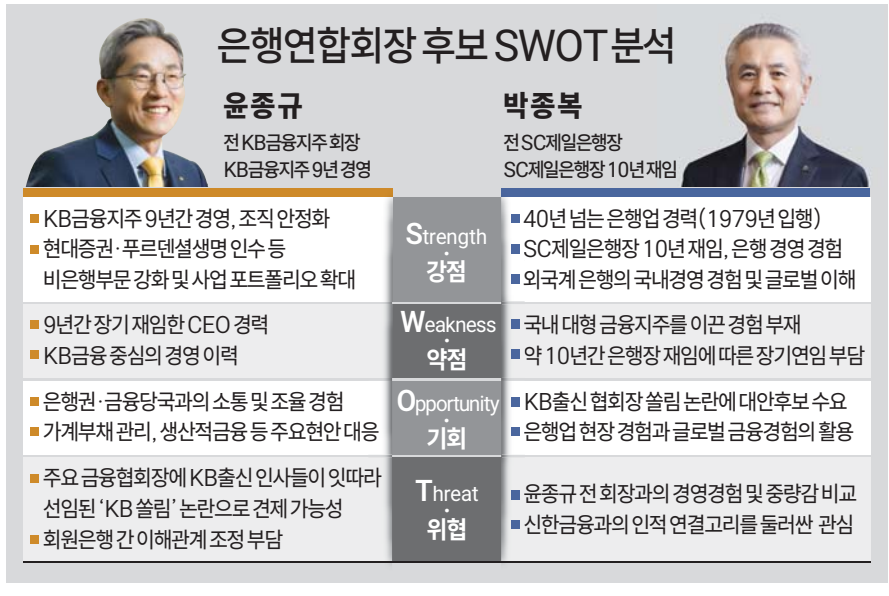
한편 1966년생인 이 회장은 서울고와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해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내며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해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끌었다. 2022년 당시 은행권 최연소 행장으로 KB국민은행을 3년간 이끌었고, 올해부터는 글로벌과 자산관리(WM)·중소기업(SME) 부문을 함께 총괄해 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종합금융 성장 기여 vs 글로벌 금융 경영자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은행연합회장 최종후보 오늘 결정
윤종규·박종복 '인적 네트워크' 변수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 1명이 23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경영 이력과 금융권 내 인적 네트워크가 막판 승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회추위는 조용병 현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시중은행 대표 6명, 특수은행 대표 3명, 지방은행 대표 1명,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 '금융지주 9년' 윤 vs '은행장 10년' 박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71)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71)이다. 두 사람 모두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최고경영자(CEO)를 지냈지만, 경영 이력과 강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윤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KB금융지주를 이끌었다. 취임 당시 내홍('KB사태')을 겪던 KB금융 조직을 안정시키고,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대증권과 푸르덴셜생명 인수 등을 통해 KB금융을 은행 중심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형 금융지주를 이끌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경험은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의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거론된다. 지난 2023년 은행연합회장 잠정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스스로 고사한 바 있다.

박 전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영업 현장을 두루 거친 정통 은행원 출신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SC제일은행장을 지내며 국내 은행업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금융그룹의 경영 경험을 쌓았다.

특히 외국계 은행을 이끌면서 국내 금융당국과 해외 본사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영업 현장에서 출발해 은행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만큼 은행업 실무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충북 청주 출신이다.

◆ 막판 변수 촉각

두 후보 모두 오랜 기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만큼 부담 요인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특정 금융그룹 출신 인사들의 협회장 쏠림 논란과 후보별 인적 네트워크가 막판 인선의 변수로 거론된다.

윤 전 회장의 경우 최근 주요 금융협회장 자리에 KB금융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된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이 여신금융협회장에,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가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회장까지 은행연합회장을 맡게 되면 주요 금융협회 수장에 KB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

박 전 행장은 대형 국내 금융지주를 이끈 경험이 없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꼽힌다. SC제일은행장을 약 10년간 맡으며 네 차례 연임한 만큼 장기 재임에 따른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은행연합회장인 조용병 회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회장이 박 전 행장에게 우호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전 행장이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억원, 유럽서 글로벌 금융안정 정책 논의

금융위,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럽 주요국을 방문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NBFI) 등 새로운 금융 위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과 은행감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최종 합의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와 독일, 영국을 방문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고 유럽 주요 금 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 금융규범 논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FSB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금융협의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G20 주도로 출범했다.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서는 레버리지 거래 확대에 따른 위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헤지펀드와 사모신용 등 비은행금융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요인 분석과 데이터 공백 해소, 기존 권고사항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K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싱가포르서 데모데이 행사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6'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해외 투자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현지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6은 전 세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투자자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다. KB금융은 금융위원회의 '2026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 핀테크 기업 10개사의 'K-핀테크 공동관' 전시와 해외 홍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들은 금융 IT, 디지털 자산, 외환·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금융회사와 현지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안상미 기자